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이상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동성애자들이 시민, 교회 회원으로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경의 새로운 해석과 과학적 연구가 자리잡고 있다. 동성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온 성경 본문들을 거꾸로 동성애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동성애를 용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표본조사와 설문조사 특히 유전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도덕적, 법적 제약도 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성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의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 본문들이 동성애를 침묵 또는 용인하고 있다는 새로운 해석은 심각한 편견에 의한 왜곡된 해석이다. 둘째,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조사와 실험들이 의도적인 표본선정의 편향성, 결과의 조작 등으로 얼룩진 것들이다. 즉,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은 입증된 적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가 왜곡된 성 습관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 주장도 이해되어야 한다.

2.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이 동성애에 관하여 침묵하거나 용인한다는 주장은 본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로마서 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해석 문제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창세기 19:5의 '상관하다'와 8절에 '남자를 가까이하다'에 사용된 히브리

어 "아다"가 '성교'를 뜻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구약 전체 948회 중 12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소수용법이 여기서 사용되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어의 용법은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소수용법인가 다수용법인가는 큰 의미가 없다. 사실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창세기에서 사용된 12회 중 10회가 성교의 뜻으로 사용되었기에 여기서도 '성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에스겔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겔 16:49-50)."고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에 이어 "거만하여 기증한 일"을 했었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추가한다. "가증한"이라는 형용사는 레위기 18:22에서 동성 간의 성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에스겔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으로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유다서 7절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b.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삼상 18:3)."는 표현을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또 "겉옷을 벗었다(삼상 18:4)."는 성행위를 위하여 옷을 벗은 것으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삼상 20:41)"는 성에 시 입맞춤과 오르가즘을 경험한 것으로 기상천외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다는 의미이며, 겉옷을 벗어 준 것은 우정의 징표, 입맞춤은 당시 관례적인 친밀한 인사방법이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울음을 오르가즘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c. 로마서 1:26.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로마서 1:26-27의 "순리"와 "역리"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해석한다. 사회학적 개념은 사회학적 성찰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본문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더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들의 하나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맞고 자연스럽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하는 것은 순리이고 동성끼리 성교하는 것은 역리라는 것이다.

d. 고린도전서 6:9. 존 보스웰은 본문에서 “탐색하는 자”(헬, 말라코이)는 일반적인 도덕적 연약성을, “남색하는 자”(헬, 아르켈코이타이)는 남성 창부를 가리키는 것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탐색하는 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와 “남성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는 강렬한 용어들이 병렬되어 있는 구조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자리잡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남색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70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에서 레위기 18:22과 20:13의 동성애자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신조어로, 남성 동성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본문은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해 준다는 과학 조사 또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표본조사의 편향성과 실험과정 및 연구결과의 조작으로 얼룩져 있다.

a. 킨제이연구보고서.

1940-1950년대에 킨제이가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전 세계 인구 중 10%가 동성애자라는 수치가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교단의 공식문서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백인 남성의 10%가 16-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자라는 조사결과가 와전된 것이며, 표본으로 선정된 백인 남성들은 대도시에서 사는 동성애 연맹과 동성애 네트워크에서만 선택된 자들이다. 1990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1%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b. 호르몬, 뇌 구조, 유전자 연구결과.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반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여성 동성애자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 19세기에 등장했으나, 연구결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성인 호르몬 가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전도된 성 행동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험에 사용된 정도의 성 호르몬 증가는 통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동물 성 호르몬 투여실험).

또 암컷 쥐에게 에스트로젠을 주입했을 때는 황체형성 호르몬 반응이 나타났으나 수컷 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남성 동성애자에게 황체호르몬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고, 최근에는 여성에게서 황체 호르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동물 황체호르몬 반응).

유사 실험에 의해 산전에 비정상적인 호르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적 지향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험에서 조성한 정도의 비정상적 호르몬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실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 중 성 정체성으로 문제를 보인 아이들은 없었다(약물에 의한 호르몬 환경의 변화).

뇌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의 뇌 구조(SCN, INAH3 등) 일부가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가 된 부위의 크기가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자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불분명하며, 다수가 AIDS를 앓다가 죽은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된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함이 확인되었다.

1952년에 행해진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100%로 보고하였으나 표본이 동성애자인 쌍둥이들 중에서 선정되었고 수치 상 치명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적인 일치율은 11% 내외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이란성 쌍둥이와 입양된 형제들 사이의 일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동성애가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었다(간접적 유전자결정 가설).

1993년에 40쌍의 동성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3쌍이 Xq28이라는 성염색체의 어떤 부분을 공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으며, Xq28은 동성애와 무관한 것이 확인되었다(직접적 유전자결정 가설).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과(문학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을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네덜란드 칼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과 교수이며, 기윤실 신학위원장,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동성애를 침묵 또는 용인한다거나,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왜곡되고 병든 성적 습관으로, 성경은 이를 왜곡된 비윤리적 성적 성향이자 성 행위임을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전제 하에서 동성애자들의 시민권과 성도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성애자는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열악한 자, 인종상 차별받는 자, 장애인, 고아, 과부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구조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열악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자들로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비록 소수라도 사회적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다. 물론 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법적으로 적극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적으로 건전한 행위를 장려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법의 본무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왜곡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돌아오는 것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를 교정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자들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교정기간을 두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정을 거부한다면, 교회의 순결 유지를 위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며, 더욱이 동성애를 교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겨서도 안 될 것이다.